

권점법(圈點法)과 운율 기호에 대하여

정 영 호

〈목 차〉

I. 서 론	3.1. 방점 표기의 규정
II. 권 점 법	3.2. 운율 기호의 실제
2.1. 권점에 대한 기존의 연구	-운율 표기의 변천이라는 측면에서
2.2. 훈고학적 측면에서의 권점법	
III. 운율 기호	IV. 결 론

I. 서 론

이 글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으면서 가지게 된 권점(圈點)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구두점(句讀點)과는 다른 성질의 권점이 왜 일부의 한자에만 표시되어 있는가? 이런 표기 체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문헌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표기들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되어 정리한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권점법을 훈고학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체로 권점의 본질 내지 기능에 대해서 권점이 표시되어 있는 일부의 문헌을 대상으로 해서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연구들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거나 이후에 필자가 보았던 권점이 표시된 자료를 덧붙여 제시한다. 둘째, 운율 기호¹⁾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권점법이 한자의 사성(四聲)을 이용한 표기 체계

라는 관점에서 운을 기호화도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중세에서 현대까지의 운을 기호의 체계를 살펴 본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권점법에 대해서는 권점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훈고학적 측면에서 권점법을 해석한다. 아울러 권점법의 변천과 기원에 대해서도 덧붙인다. 운을 기호에 대해서는 중세 문헌의 방점 표기 규정을 살펴 보고 통시적 맥락에서 주요 문헌에 존재하는 운을 표기의 양상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리고 그러한 표기의 체계가 현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권 점 법

2.1. 권점에 대한 기존의 연구

권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자의 사성(四聲)과 관계가 있고, 중국 운서의 전통적 체계에 의한 성조 표기이다.

둘째, 오독(誤讀)의 우려가 있는 글자들에 있는 것이다.

셋째, 한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별의(別意)로 사용된 한자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다음에서는 이런 견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정연찬(1970 : 589—603) : 세종대에 한자만을 사용한 문장(훈민정음 해례본, 용비어천가)에 있어서 성조 표기가 어떻게 처리되었는 가

1) '운을 기호'라는 용어는 중세 국어에서는 방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의도가 중세에서 현대까지의 운율을 나타내는 기호 체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기에 이 용어를 사용한다. 그 운율이 어떤 것이었느냐는 일단 논의에서 제외한다.

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한자의 네 모서리에 있는 권점²⁾은 오독(誤讀)의 우려가 있는 글자들에 있는 것이고 한자의 사성과 관계있는 것으로 본다. 또 권점의 기원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사성의 구별에 고심했던 한국인의 창안으로 보고 있다.

(2) 이기문(1971 : 62-66) : 訓蒙字會에 나오는 권점에 대한 기록에 의해 권표(圈標) 즉 권점이 한자의 성조를 나타낸 것으로 권표가 지시하는 字音의 성조는 훈몽자회가 보여 주는 字音表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국 운서의 전통적 체계에 의한 것이라 한다. 그 예로 “行 : 行 · 덕 : 行”을 들고 있다. 즉 ‘行’에서는 거성을 ‘ : 行’에서는 상성을 나타내고 있다.

(3) 안병희(1986 : 149-158) : 교감(校勘)에 의하여 파음자(破音字)³⁾를 찾아내어 권성(圈聲) 즉 권점을 재구하고 있는데, 권성의 근거가 당시의 우리나라 현실음이 아니고 동국정운의 한자음이 배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 서종학(1991 : 47-67) : 한자의 성조를 표기하기 위하여 권점이 사용되었다는 종래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에서 권점 표기를 가진 문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다음 두 가지의 결론에 이른다.

첫째, 本音(즉 本義)이 아닌 ‘다른 뜻, 다른 소리’로 쓰인 한자는 그것이 한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別意로 사용된 한자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성조의 위치를 이용하여 권점을 치게 된 것이다(용비어천가, 해례본, 훈몽자회).

둘째, 상성과 거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본의에 두른 것으로 권점법의

2) 최현배(1982 : 369-374)에서는 康熙字典의 ‘分四聲法’과 훈몽자회의 ‘平上去入定位之圖’의 설명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성의 위치를 밝히고 있다. 上

--

 去

平

--

 入

3) 한자는 본래의 뜻 이외에 딴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많다. 이때 한자음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 한자는 파음자라고 부른다. 안병희(1986 : 152)

변천 양상을 알 수 있다(신증유합, 석봉천자문).

아울러 중세 국어 자료에서 하나의 한자가 여러 의미로 사용될 때 이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注音法이 사용되었고 권점법은 이런 주음법의 불편(시간, 경비, 노력)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최세화(1982: 80)에서도 훈민정음 해례본의 권점이 同一 한자가 성조의 차이로 의미의 분화를 가져오는 것에는, 의미에 따라 성조를 나타내는 권점을 표시함으로써 구별하도록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최희수(1986: 282)에서는 성조 표시 방법으로 사체천자문(四體千字文)에서 글자의 오른쪽 윗귀에 (○)를 찍은 것이 평성이고 (●)을 찍은 것이 상성과 입성이고 (◐)이 상성과 평성의 통용 표기라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다.⁴⁾

이상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권점 표기 자체는 한자의 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정연찬(1970)에서는 권점을 ‘오독의 우려가 있는 글자’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 서종학(1991)에서도 ‘해석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석상의 주의를 주기 위해서 성조를 이용하여 권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한다.’⁵⁾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한문의 해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권점 표시가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권점법을 해석하고자 한다.

2.2. 훈고학적 측면에서의 권점법

훈고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보고 이것이 권점의 해석에 적합한

4) 사체 천자문이 어떤 책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만약 그 성조 표기가 최희수(1986: 288)의 설명처럼 上古漢語聲調와 대응되는 것이라면 국어 한자음 성조의 형성과 발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고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5) 서종학(1991)에서의 연구가 많은 분량의 자료를 제시하여 권점의 본질에 대해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 여부를 검증하기로 한다. 그리고 권점법의 변천과 기원에 관련되는 몇 가지를 알아 본다. 이돈주(1992 : 661)에서는 훈고(訓詁)란 漢語, 漢字의 의미에 대하여 공식적 용법과 통시적 변천 등을 탐구함으로써 옛 서적의 의미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훈고의 표현 양상은 주음법과 주해법이 있다.

2.2.1. 주음법(注音法)과 주해법(注解法)

한자는 表語(意)文字로서 형(形), 음(音), 의(義)를 갖추고 있다.⁶⁾ 여기서 한자는 동음이의자(同音異義字)가 많고 전주(轉注)에 의한 多字一義, 가차(假借)에 의한 一字多義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아울러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자의(字義), 성운(聲韻) 등이 변하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고전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훈고학이 성해지면서 이와 같은 자음(字音)이나 자의(字義)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한자에 주음(注音)을 하거나 주해(注解)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표현 양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⁷⁾

- (1) ① A, x也(A, x也, y也) ② A謂 x ③ A與 x同, A x字通
 ④ A 聲 x 相似, 相近 ⑤ A 讀爲(曰) x ⑥ A, 讀如(若) x
 ⑦ x y曰 A(x y 爲 A) ⑧ A猶 x也 ⑨ A, 所以 x 也
 ⑩ A, x之辭(A, x之辭) ⑪ 古曰A, 今曰B ⑫ A 音 x

이와 같은 주음과 주해의 방법은 많은 한자를 알고 있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즉 주음을 하고자 할 때는 다른 한자에서 음을 가져와야

6) 漢字(中國文字)學은 字形學, 字音學, 字義學(訓詁學)의 세 분야가 있다.

7) 주음(注音)의 방법은 반절법(反切法)이 주로 이용되었지만 그 이전의 주음법은 비황법(譬況法), 독약법(讀若法), 직음법(直音法) 등이 사용되었다. 주음과 주해의 표현 양상은 이돈주(1992 : 570-572, 691-697)을 참고할 수 있다.

하고 주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자의 사성만 알면 문장에서 한자의 음이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권점법이 고안된 것이 아닐까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자에는 사성이 있으며 하나의 한자는 사성의 다름에 의해서 음이나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면 문헌에서의 권점 자료를 가지고 이를 검증해 보도록 한다.

2.2.2. 권점법의 이해

훈고학적으로 권점법을 이해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문헌으로는 훈민정음 해례본, 용비어천가, 법화경언해가 있다. 그런데 규범 문헌이라 할 수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아무 설명도 없이 권점 표시가 나타난다. 여기서는 이 문헌의 자료를 가지고 살펴 보도록 한다.⁸⁾

(2) 훈민정음 해례본(1446)

- | | |
|-------------------|----------------------|
| ① 復°: 終聲復°用初聲(3b) | °微: 於音爲°微(6b) |
| 出°: 爲初出也(9b) | 論°: 固未可以定位成數論°也(11a) |
| 易°: 精義未可容易°觀(15b) | 塞°: 入聲促而塞。(26b) |
| 。縱°: 其先縱後橫(27a) | 着°: 初中聲下接着。焉(27b) |
| 趣°: 其每趣°之難曉(31a) | 讀°: 始作吏讀°(31b) |
| 調°: 音叶七調°(31b) | |
| ② °上: 二則°上聲(4a) | 斷°: 齒剛而斷°(6b) |
| °長: ㄱ木之盛°長(8a) | 離°: 水火未離°乎氣(11a) |
| 和°: 和°之於後(12a) | 相°: 其財成輔相°(12b) |
| 要°: 要°於初發細推尋(15a) | 先°: 天先°乎地理自然(17b) |
| 。幾°: 窮深。幾(18b) | °處: 要°皆各隨所°處而安(31a) |
| °強: 不可°強之使同也(31a) | 應°: 集賢殿應°教(32b) |

8) 용비어천가, 법화경언해의 권점 자료는 정연찬(1970), 서종학(1991)을 참고하면 된다.

- °稽 : °稽首謹書(33b)
 ③ °待 : °待人而成也(9b) °成 : °脾肺腎質之°成也(12a)
 °別 : °唯業似欲取義別。(13b) 索 : °初非智營而力索。(5a)
 °見 : °二圓爲形見°其義(16b) °夫 : °夫東方有國(33a)
 °爲 : °於時°爲夏(6b)

(2) ①의 한자들은 음과 뜻이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인데 그에 따라 사성도 달라지는 경우이다. 즉 ‘復’은 거성의 ‘다시(부)’로 해석해야 문맥에서의 復의 쓰임을 이해할 수 있다는 표시로 권점을 이용하고 있다. 復은 입성일 때는 ‘회복하다(복)’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다른 예들도 이와 같이 해석하면 된다.

(2) ②는 정연찬(1970)에서 지적한 오독(誤讀)의 우려뿐만 아니라 권점 표시를 할 때 뜻도 고려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上’은 廣韻에서 陽韻 上聲일 때는 ‘위(상)’, 陽韻의 去聲일 때는 ‘오르다(상)’로 오독의 우려가 없다. 음은 동일하고 뜻과 사성이 서로 다른 것이다.⁹⁾ 뜻을 고려해서 다른 뜻으로 그 글자가 문맥에서 사용될 때 사성의 다름을 이용 권점을 표시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문맥에 맞는 뜻으로 해당 한자를 해석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②의 다른 예들도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문장 속에서 그 한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해례본에 나오는 이런 한자를 다음에 모두 제시한다.

- (3) 斷⁹(6b), 聾(8a), 離⁹(11a), 和⁹(12a, 17b, 17b), 相⁹(12b, 18a)
 先⁹(17b), 要⁹(15a, 31a), °處(31a), °強(31a), 應⁹(32b), °稽(33b)

(2) ③에서 °待, °成, °別은 음과 사성이 하나이다. 그런데도 권점

9) 여기서 그 발음이 당시에는 달랐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周法高의 3인 編(1973 : 1)에서의 ‘上’의 발음은 董同龢, Karlgren, 周法高가 재구한 상고음, 중고음 등이 동일하다. 음이 달랐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뜻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待는 ‘기다리다, 대접하다’ 등의 뜻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권점을 표시함으로써 본 뜻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됨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¹⁰⁾

‘素, 見, 夫’는 사성은 하나이지만 뜻 혹은 음이 둘 이상인 경우인데 권점이 표시되어 있다. 즉 見은 ‘보다(견), 드러나다(현)’ 일 때 거성으로만 발음된다. 이것도 본래의 음과 뜻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됨을 권점으로써 지시하는 것이다.

‘爲’는 사성으로는 평성과 거성만을 가지는데 상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¹¹⁾

결국 (2)의 예들을 훈고학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중국어가 성조 언어라고 볼 때 하나의 한자는 사성에 의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사성이 달라짐으로 해서 그 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¹²⁾ 훈고학적인 측면에서 권점은 한문을 읽거나 해석을 하고자 할 때 문맥 속의 난해한 음이나 뜻을 가진 한자에 사성을 이용해 권점을 침으로 해서 한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한 일종의 符號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성은 소리이고 권점은 기호 체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점법도 주음법, 주해법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것이고 다만 사성을 이용한 기호 체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0) 일반인들이 평소에 이들 자음을 권점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발음하지 않고 다른 성조로 발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없는 것 같다.

11) 서종학(1992 : 63)에서처럼 우리나라 현실음의 반영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같은 장의 ‘於時爲冬’, ‘於時爲春’, ‘於時爲秋’에는 ‘爲’에 권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誤刻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2)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樂 : ①풍류 악(覺韻 入聲) ②좋아할 요(效韻 去聲) ③즐길락(藥韻 入聲)

2.2.3. 권점법의 변천과 기원

훈몽자회(1527), 신증유합(1576), 석봉천자문(1583), 광주천자문(1575), 주해천자문(1804), 삼체(주해) 천자문(1916)에는 권점에 대한 설명이나 권점 표시가 되어 있다.

권점에 대한 기술이 보이는 훈몽자회와 신증유합에 대해서는 이기문(1971), 서종학(1991)에서 이미 분석한 바 있다. 단지 훈몽자회의 권점 표시를 살펴 보면 서종학(1991)에서의 용어로 註가 있는 파음자와 註가 없는 파음자가 있다. 본고의 2.2.2.에서는 훈고학적 관점으로 권점의 용도는 어느 한자의 음과 뜻을 문맥에서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가를 사성을 이용 표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훈몽자회라는 책이 한문 교본의 성격을 지님을 생각할 때 훈몽자회의 권점 자료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즉 註가 있는 파음자는 그 파음자가 문장 속에서 쓰일 수 있는 예를 설명한 것이고 없는 파음자는 그 한자가 권점이 표시된 대로 음과 뜻이 쓰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권점의 변천, 기원과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문헌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다.

신증유합序의 ‘圈上去聲’, ‘平聲入聲不圈’은 권점법의 변천과 기원에 대한 일면을 보여 준다.

(4) 圈上去聲

凡經史子集中 字之本義則不圈 別義則圈之 尙矣 今却於上去聲 本義必圈者 只欲兒童易曉 字高低之義也

平聲入聲不圈

(4)는 먼저 권점법이 상성과 거성의 표기에 이용된 것을 의미한다. 즉 상성, 거성으로 본의에 반드시 권(圈)을 한 것은 단지 이동이 쉽게

高低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평성, 입성은 권(圈)을 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사성 표기의 경제성을 고려한 것이다. 상성, 거성에만 표시를 하여 두면 평성, 입성은 그 발음으로 구별이 되기 때문이다. 또 상성, 거성의 인위적 구분책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신증유합과 같은 책에서 상성, 거성에만 권점을 표기한 것은 상성, 거성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국정운序의 ‘字音則上去無別’과 소학언해 범례의 ‘上去相混’에서 우리 한자음에서는 중국 원음의 상성, 거성이 구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사성을 이용해서 권점을 친 권점법의 원래의 목적에서 순수히 사성 즉 상성, 거성을 표기하기 위해 권점법이 사용된 것이다. 이런 권점은 신증유합(1576), 석봉천자문(1583) 등에 표시되어 있다.

(4)는 권점법의 기원에 대해서도 암시를 하고 있다. 즉 (4)에서 줄 친 經史子集이 어떤 종류의 책을 말하는지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經史子集은 중국 서적 중에서 경서(經書), 사서(史書), 제자(諸子), 문집(文集)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古典인 四子之書 즉 四書와 五經, 각종 史記, 諸子百家의 서적, 문집 등이 포함된다. 즉 四書五經 등의 책에는 글자의 본의(本義)에는 권(圈)을 하지 않고 별의(別義)에 권(圈)을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권점법도 훈고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고 중세 국어의 권점은 중국의 고전을 읽었을 선인들이 그런 책들에서 답습한 것이 아닌가 한다.¹³⁾

13) James Legge(1976)에 영인된 논어, 대학, 중용 등의 문장에도 권점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예전에 중국에서 이용된 방법인 것 같다.

앞에서 인용된 것 외에 光州千字文(1575), 註解千字文(1804), 三體(註解)千字文(1916)에서도 권점 표기가 발견된다.

光州千字文(1575)의 1a, 1b, 2a, 2b의 1행, 5b, 6a의 2행에서는 붓으로 표기한 듯한 권점이 발견된다. 석봉천자문과 권점 표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권점이 동일한 것 : 地°, 宙°, 閏°, 歲°, 致°, 問°, 愛°

光千에만 있는 것¹⁴⁾ : 日°, 月°, 宿°, 列°, 律°, 育°, 伏°

石千에만 있는 것 : °署, °體

光千과 石千이 차이는 것 :

光千-字°, 往°, 呂°, 雨°, 坐°, 道°, 拱°, 邇°

石千-°字, °往, °呂, °雨, °坐, °道, °拱, °邇¹⁵⁾

註解千字文(1804)에는 상성은 「 ° », 거성은 「 ` 」으로 각 한자의 사성을 그 釋의 우측에 표시하고 있다.

서중학(1992 : 66 주3)에서는 시대상 후대의 문헌, 권점 표시의 방법이나 그 기능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논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첫장의 다음 글을 음미해 보면 여기서도 엄연히 권점이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6) 每字釋解主本句文義次書別義標

以又字本義柱後則標以本字本?

14) 여기에 속하는 글자가 모두 사성으로는 입성에 속한다는 것이 특이하다.

15) '坐'는 集韻에 箇韻(앉다)의 거성, 韻韻(좌를 입다)의 상성으로 되어 있는데 石千은 '앉다'라는 의미일에도 상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光千은 비록 붓으로 그려 넣은 것이지만 거성으로 바르게 표시되어 있다. 註千에서는 안줄 좌(상성), 被罪(거성)으로 짐윤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상성과 거성의 혼란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6) 이기문(1973 : 14-15)에 의하면 이 책의 처음 三葉을 缺하여 一養文庫本으로 보충하였으나 동일 판본임을 밝히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亦不可無解故略註於遂行下又以
圈點別四聲上聲則圈去聲則點
入聲則否一義二聲則細註其一

(6)의 줄 친 부분을 보면 註千에서는 권점으로써 사성을 구별하여 상성은 권(圈) 즉 ‘ 〃 ’으로 표시했고 거성은 점(點) 즉 ‘ ˙ ’으로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¹⁷⁾ 몇 가지 실례를 들도록 한다.

(7) 宿(1b)	張(1b)	藏(2a)	調(2a)	爲(2b)
별 ˙	커 ˙	곳 ˙	곡 ˙	위 ˙
슈	질	집	도	홀
	장	장	도	위

(7)에서의 한자들은 거성일 때의 釋.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石千과 비교해 보면 石千에서는 ‘잘숙, 베풀당, 갈물장, 고를도, 홀위’로 평성 혹은 입성으로 쓰일 때는 권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註千에서 (7)과 같이 쓰일 때 사성은 거성으로 되어 그 표시가 되어 나타난다. (이하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註千의 상성 표시 ‘ 〃 ’가 되어 있는 한자를 石千의 권점과 비교해 보면 동일함을 발견할 수 있다.

三體(註解)千字文의 첫장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8) 글즈마다눔고노즌즈 | 잇스니눔혼즈눔음을느리게부르며노즌즈눔음을
 되게부르느범인고로눔혼즈눔 ● 검은덤을씩고노즌즈눔 ○ 흰덤을씩으며
 글즈가눔고노게두가지로되노즌즈눔 ● 반덤을씩어써글즈의고더를표호노니
 이는다름아니라말홀씨에고더를분명히호야문명호사름이되게홀이나라

17) 여기서 권점(圈點)이라는 용어는 권(圈)과 점(點)을 이미하기 때문에 권(圈)만 가지는 문헌에는 권점(圈點)이라는 용어가 적합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지로 삼채(주해)천자문에는 단음에 ○, 장음에 ●, 단음과 장음에 ㉠가 표시되어 있다.

이상으로 훈몽자회의 권점 자료는 권점이 훈고의 한 표현 양상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증유합序의 ‘圈上去聲’에서 권점법이 후대로 내려와서는 훈고의 목적에서 사성(四聲)의 경제 적 표기 즉 상성, 거성의 표시로 변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권점의 기원에 대해서는 ‘經史子集’이 중국의 四書五經 등의 책을 의미한다는 것에서 훈고학에서 널리 사용되던 표기 체계일 수 있다는 추정을 했다. 끝으로 광주천자문, 주해천자문, 삼채(주해)천자문에도 권점 표시에 대한 설명 혹은 권점 표기가 있음도 보았다.

그러면 권점의 목적이 후대로 내려 와서는 훈고의 목적에서 상성, 거성의 표기로 변천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다음에서는 이와 무관하지 않은 운율 기호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한다.

Ⅲ. 운율 기호

중세 문헌에서의 방점 표기의 규정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 보고 운율 기호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3.1. 방점 표기의 규정

중세 문헌에서의 방점 표기에 대한 것은 훈민정음(해례본, 언해본), 동국정운, 훈몽자회 범례, 소학언해 범례, 사성통고 범례, 번역노걸대박 통사 범례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방점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다.

(9)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4a)

凡字之左 加一點爲去聲 二點爲上聲 無點爲平聲(36a)¹⁸⁾

즉, ‘활(평), ·갈(거), :돌(상), ·분(입)’ 등과 같이 글자의 왼쪽에 0점, 1점, 2점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⁹⁾ 이와 같이 우리 말의 좌측에 표시된 방점은 현실음을 반영한 것으로 여러 문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한자음의 좌측에 방점이 표시된 것도 흔하다. 한자음에 대한 방점은 중국의 사성에 입각하여 동국정운의 표기 체계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과 우리의 현실 한자음 운소를 나타낸 것으로 나누어진다.

東國正韻 한자음의 방점은 중국의 사성에 의해 평성(0점), 거성 입성(1점), 상성(2점)으로 글자의 왼쪽에 나타낸다. 김영만(1967)에서는 동국정운의 방점이 대체로 현실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한자음에는 중국 사성의 상성, 거성이 구분이 없는데 즉 ‘上去無別’인 태도 인위적으로 상성, 거성을 구별하려는 정책을 반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동국정운식 방점 표기는 인위적인 표기 체계인 것이다.

반면에 현실음을 나타내는 훈몽자회의 凡例에도 방점 표기의 규정이 있다.

(10) 凡字音高低皆以字傍點之有無多少爲準

平聲無點上聲二點去聲入聲皆一點

(10)의 규정은 훈민정음에서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말과 한자음에 대한 방점 규정을 나타낸다. 그런데 훈몽자회 한자음의 방점 표기는

18) 계속해서 한자의 입성은 우리 말 거성과 흡사하므로 일점, 우리 말의 입성은 평성 혹은 상성 혹은 거성과 흡사하므로 그 운소에 따라 방점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19) 최현배(1982 : 372)에서는 방점을 글자의 왼쪽에 친 것은 자형이 다른 자로 될 염려(기 → 기·기: → 가가)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

국어 현실 한자음을 반영한다. 즉 훈몽자회(하5a)에는 ‘射·뿔 : 싸’로 나타나고 있는데 射는 사성으로 거성일 때는 ‘쏘다(사)’, 입성일 때는 ‘맞히다(석)’임에도 ‘ : 싸(상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 사성에 대한 우리 한자음의 방점이 어떻게 표기되는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²⁰⁾

(11) 중국의 사성	우리 한자음의 방점
平	0점
上	1점, 2점
去	1점, 2점
入	1점

小學諺解 凡例에도 우리 한자음에 중국 사성의 上, 去가 구별되지 않아서 현실음에 따라 운소를 표기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上去相混’, ‘從俗爲點’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중국음을 사성에 따라 방점 표기하도록 하는 四聲通攷凡例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2) 凡字音四聲以點別之平聲則無點上聲則二點去聲則一點入聲則亦一點

우리 국어에서 입성이 운소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12)에서는 한자의 입성에 1점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설명되어 있는 한자의 입성은 우리 한자음의 거성과 흡사하므로 거성과 같이 1점을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繙譯老乞大朴通事凡例에는 國音條, 漢音條, 諺音條, 旁點條가 있는데 특히 國音條, 旁點條에는 방점에 대한 다음의 규정이 있다.

20) 이것은 김영만(1967)에서 훈몽자회를 자료로 조사한, 중국 원음의 사성이 우리 한자음의 운소에 반영되어 있는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13) 國音條

平聲無點上聲二點去聲入聲一點

旁點條：漢字下諺音之點

在左字旁之點則字用通攷所制之字故點亦從通攷所點而去聲入聲一點上聲二點平聲無點在右字旁之點則字從國俗編撰之法而作字故點亦從國語平仄之呼而加之

(13)의 국음조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규정과 동일하다.

(13)의 방점조는 노걸대, 박통사류의 문헌에서 한자 아래에 있는 한글 글자 왼쪽에 있는 방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왼쪽에 있는 글자의 방점은 사성통고식으로 표시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의 방점은 당시의 국어 현실음에 입각해서 漢音을 反譯하여 방점을 표기한 것이다.

정리를 하면 문헌의 방점 규정에 의해 그 방점은 다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우리 말의 좌측에 표시된 방점

둘째, 동국정운식으로 한자음의 좌측에 표시된 방점

셋째, 현실 한자음 운소를 글자 좌측에 표시한 방점

넷째, 한자 아래에 있는 한글 글자 왼쪽에 있는 방점

3.2. 운율 기호의 실제—운율 표기의 변천이라는 측면에서²¹⁾

3.1.의 방점 표기 규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방점이 여러 문헌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알아 본다. 아울러 그런 표기 체계

21) 여기서는 방점이 나타내는 운소에 대해서는 간단한 언급만 한다. 운율 표기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이다.

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한다. 이것은 통시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후기 중세 국어 시기의 운율 기호, 근대 국어 시기의 운율 기호, 현대 국어 시기의 운율 기호 순으로 고찰한다.²²⁾

3.2.1. 후기 중세 국어 시기의 운율 기호

우리 말의 좌측에 방점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 시기의 문헌에 많이 나타난다.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방점 표기 규정에 의한 것으로 그 방점이 어떤 운소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훈민정음의 창제를 전후한 시기에 나온 주요 문헌을 들도록 한다.

- (14) 용비어천가(1445), 훈민정음 해례본(1446), 훈민정음 언해본(1447), 석보상절(1447), 월인천강지곡(1449), 월인석보(1459), 묘법연화경 언해(1462), 능엄경언해(1462), 선종영가집언해(1463), 금강경언해(1464), 원각경언해(1465), 구급방언해(1467),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467), 내훈(1475), 금강경삼가해(1482), 두시언해(초간, 1481), 구급간이방(1489), 여씨향약언해(1518)

(14)에 있는 문헌들 중에서 한자음에 대한 운율 기호는 대부분 동국정운식 규정을 따르고 있다. 여씨향약언해, 두시언해, 구급간이방에서는 한자음에 대한 표기가 없어 방점이 없는 것이 다르다.

우리 말 표기에서는 (14)의 문헌들과 같이 현실음을 반영하고 있지만 한자음 표기에 있어서는 (14)와는 달리 현실 한자음 운소를 표기하는 방점이 표시된 문헌이 있다.

- (15) 육조범보단경언해(1496), 진언권공(1496), 삼단시식문(1496)

22)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율 기호의 변천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편의상 쓰인 개념이다.

훈몽자회(1527), 야운자경(1577), 소학언해(1586), 사서언해(1590),
번역소학(16c末?)

방점이 나타나는 노걸대, 박통사류의 문헌에서 원문을 우리 말로 번역한 글의 좌측 방점은 기타 문헌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들 문헌에서는 한자 아래에 두 가지의 한자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그 왼쪽에 방점을 표기하고 있는데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의 방점조에 나오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16) 當 今 聖 主
 당·당 긴·긴 ·상·상 :쥬 쥬(박통사 상: 1a)

(16)에서 각 글자의 좌측 우리 말의 방점은 사성통고식 방점 표기 즉 중국 원음을 나타낸 것이다. 우측 우리 말의 방점은 ‘國俗編撰之法’에 따른 방점 표기임을 알 수 있다. 즉 당시의 국어 현실음에 입각해서 漢音을 反譯하여 방점을 표기한 것이다.²³⁾

여기서 (16)의 중국 원음 성조 표기는 전통적인 사성통고식 표기 방법 즉 평성(0점), 거성 입성(1점), 상성(2점)으로 표시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중국어 운율 표기 방법과는 다른 기호 체계가 있음을 본다. 중국어 성조를 붓으로 표기한 것인데 다음에서 그것을 알아본다.

3.2.2. 근대 국어 시기의 운율 기호

문헌에서의 중국어 성조 표기에 대한 연구는 菅野裕臣(1977)과 김완진(1978)이 있다.

菅野裕臣(1977: 405-416)은 근세 중국어 성조 표기에 대한 연구인

23) 허웅(1955: 51)에서 방점조에 근거하여 사성통고의 加點法, 反譯의 加點法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대 사역원(司譯院)에서 번역한 한학서(漢學書)에 표시된 성조 표기 방법을 고찰하고 있다. 여기서 성조 기호가 있는, 판본이 다른 여러 한학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에 그 책의 이름만을 제시한다. 자세한 것은 위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17) ① 박통사 上(?), 노걸대 上(?), 노걸대下(?)

② 노걸대(?), 오륜전비언해(1721)

박통사신석언해(1765), 중간노걸대언해(1795)

(17)에 표시된 성조 기호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 각 漢字 밑에 한글로 병서된 중국음과 국어음의 좌측에 표시된 것.

둘째, 각 漢字의 우측 또는 좌측에 성조 기호가 붓으로 표시된 것

첫째 경우는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의 방점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중국어를 사성통고식으로 방점 표기한 것이다. ①의 문헌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성조 표기는 ‘·□, :□, □’와 같이 나타난다.

둘째 경우는 성조 기호가 한자 옆에 붓으로 기입된 것인데 朱色이나 黑色으로 후에 기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②의 문헌들이 해당되고 ‘□·, □:, □フ, ·□, □<’ 등으로 성조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운율 기호를 이용해서 중국어(한자)의 성조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그것은 최세진 이후에 쓰이고 있는 방점을 중국어 성조 표시에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지 글자의 좌측에 표시하던 방법을 한자 우측에도 표시하고, 새로운 기호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²⁴⁾

24) 자세한 것은 권아유신(1977)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나 오자가 많고 실제로 그러한 문헌을 확인할 수 없어 이해하기 곤란하다. 朱色으로 기입한 것은 영인본을 보아서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김완진(1978: 79-88)에서도 重刊老乞大諺解本 중에서 朱墨으로 傍點이 붙여진 一本에 주목하고 있다. 그 시기는 18세기말 혹은 19세기초 쯤으로 추정한다. 한자 하나하나에 ‘(·)(:)(フ)(<)’과 같은 성조 표기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국어의 성조 표기가 임진란을 전후하여 폐기되었으나 中國語 성조의 표기를 위하여는 傍點이 19세기까지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최세진이 세운 표기 전통이 譯學者들 사이에서 계승 발전된 것이라 한다.

결국 관아유신(1977)과 김완진(1978)에서의 연구를 통해 보면 17, 18세기 문헌에서는 방점 표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중국어 성조 표기를 위한 운율 기호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3. 현대 국어 시기의 운율 기호

「新訂國文」(1905), 「兒學編」(1908), 「字典釋要凡例」(1909), 「國文研究議定案」(1909), 「言文」(1909) 등에도 운율 표기에 대한 규정이 보인다. 그 내용은 대체로 유사한데 「新訂國文」의 규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8) 新訂國文高低辨

上聲去聲은 右加一點(我東俗音에 上去聲이 別로 差等이 無함이라)하고 平入兩聲은 無點이오 凡做語之曳聲에 亦加一點하니라.

(18)에 덧붙여 ‘字音高低標’, ‘做語曳聲標’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상성, 거성이 우리 속음에는 구별이 없기 때문에 오른 쪽에 일점을 더하고 평성, 입성은 점이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긴소리도 역시 일점으로 표시한다는 규정이다. 반면 「아학편」에서는 ‘四聲標’를 두어 사성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하고 있음이 차이가 있고 「자전석요」에서는 字音의 상성, 거성은 소학언해 범례식의 방점으로 그것을 구분하

고 상성, 거성에 일점을 표시함을 밝히고 있다.

「국문연구의정안」에서는 국어음에 低音(平聲)은 無點, 高音(上去聲)은 一點을 左加하고 근래에는 書寫上의 불편함 때문에 폐지한다고 한다. 또 ‘七, 四聲票의 用否及國語音의 高低法’에서 短音은 無點, 長音은 字의 左肩에 一點을 票함을 밝히고 있다.

「언문」의 서문과 범례에도 운율 표기에 대한 규정이 보인다. 즉 「언문」의 서문에 의하면 상편에서 高音字에만 우측 상단에 둥근 권점으로 표시하고 低音字는 표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편에서는 高音字(한자)는 우측 상단에 흑점을, 뜻을 풀이한 글자가 장음일 경우 우측 상단에 둥근 권점을 붙인다고 한다. 실지로 지석영의 「언문」에는 이와 같은 운율 기호가 발견된다. 「자전석요」에도 한자의 우측 상단에 흑점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四聲에 따른 것이 아니라 高音 즉 長音일 때 그 운율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만(1986: 52-53)에서는 이런 권점에 대해서 장단 표시로 보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지석영도 운율 기호에 대한 전통을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조선어사전」(1920, 조선총독부), 「큰사전」(1957, 한글학회)에서도 각각 글자의 좌측에 점으로 혹은 글자 위에 줄표로 운율 기호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의 사전에서도 장음 표시를 ‘:’와 같이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의 연구자들도 훈민정음 이후의 방점법 내지는 운율 기호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운소 자료를 이용해서 현대 국어를 연구할 경우에 대부분이 특정 음절의 위에 기호 (‘, ‘, ‘, ‘, ‘, ‘) 등을 표시한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상도 방언의 경우에 그 음절 위의 운율 기호는 대략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된다.

- (19) 3단 체계로 기술할 경우 2단 체계로 기술할 경우
 고(´), 중(), 저(`) 고(´), 저(`)
 고(´), 중(`), 저(˘) 고(´), 저()
 고(´), 저(`), 장(˘)

특히 김영만(1972)에서는 성조형에 따라 (´), (``), (˘)와 같은 운울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김주원(1991)에서는 실용적 차원의 성조 기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운울 기호로 (´), (˘), (˘), (˘), (^)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김차균(1993)에서는 중세 국어에 쓰이던 방점을 이용해서 현대 방언 성조를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중세 ‘방점법’을 현대까지도 이어지게 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운울 기호는 신증유합 등에서와 같이 글자 좌, 우측에 권(圈)을 하는 방법, 우리 말의 좌측에 방점을 표시하는 방법, 동국정운식으로 한자음의 좌측에 방점을 표시하는 방법, 현실 한자음 운소를 글자 좌측에 표시하는 방법, 한자 아래에 있는 한글 글자 왼쪽에 있는 방점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어 표기를 위해 운울 기호를 붓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계속되었고 지식영의 저서에도 운울 표기가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것은 현재에 성조를 나타낼 때 음절의 위에 (´), (``), (˘), (˘), (˘), (^) 등을 표시하고 중세의 방점법을 현재에도 계속 이어 가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권점법의 훈고학적 해석,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는 운울 기호의 체계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살펴 보았다.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권점법에 대한 것이다. 권점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한자의 사성 표시, 오독의 우려, 별의로 사용된 한자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보았다. 본고는 훈고학의 관점으로 한문을 읽고 해석하고자 할 때 문장 속에서 난해한 음과 뜻을 가진 한자에 사성을 이용해서 표시함으로써 한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한 일종의 부호라고 했다.

그리고 신증유합서의 ‘圈上去聲’과 신증유합, 석봉천자문의 권점 자료를 통해서 권점법이 후대로 내려와서는 사성(四聲)의 경제적 표기 즉 상성, 거성의 표시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권점의 기원에 대해서는 ‘經史子集’이 중국의 四書五經 등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아 과거 훈고학에서 널리 사용되던 표기 체계일 수 있다는 추정을 했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은 광주천자문, 주해천자문, 삼체(주해)천자문에도 권점 표시에 대한 설명 혹은 권점 표기가 있음도 보았다.

운율 기호의 통시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먼저 중세 문헌의 방점 표기 규정이 주요 문헌에서 실제로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가 알아 보았다. 한글 창제 이후부터 방점법이 개발되어 중세 주요 문헌의 운율 표기에 사용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17, 18세기의 문헌에서는 이와 같은 방점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중국어 성조 표기를 위한 운율 기호는 이 시기에도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식영의 언문, 자전석요에도 운율 기호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현대에 성조를 나타낼 때 음절의 위에 운율 기호를 표시하거나 중세의 방점법을 현재에도 계속 계승 발전 시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료

池錫永(1906) 言文, 廣學書舖. 서울

- 池錫永(1909) 字典釋要, 匯東書館(아세아문화사 영인 1975)
千字文,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영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3
三體(註解)千字文, 匯東書館 1916 전남대 도서관 소장본
訓蒙字會,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영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1
新增類合,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영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2
龍飛御天歌, 아세아문화사 영인 1972
訓民正音 解例本, 대제각 영인 1973

참 고 문 헌

- 김영만(1967) 이조 전기 한자음의 운율(Ⅰ,Ⅱ) 한글 139-140
김영만(1972) 고금성조 비교 재론-다음절어의 유형과 비교 공식-, 한글
149
김영만(1986) 國語超分節音素의 史的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김영만(1992) 韻素論, 「國語學研究百年史Ⅰ」 일조각
김완진(1978) 朱點本 重刊老乞大諺解에 대하여, 규장각2 서울대학교 도서관
김주원(1991) 경상도 방언의 성조 기술 방법-표기 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시론, 語學研究 제27권 제3호, 서울대 어학연구소
김차균(1993) 방점법, 언어학 제15호 한국언어학회
박병채(1980) 「言文」에 관한 研究: 聲調를 中心으로, 민족문화연구 15. 고
려대
서종학(1991) 中世國語 資料의 圈點의 機能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
식과 전개」, 민음사
안병희(1986) 訓民正音 解例本の 復原에 대하여, 「國語學新研究Ⅲ」 탐출관
사
이기문(1971) 訓蒙字會 研究, 서울대 출판부
이기문(1973) 千字文 解題,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이돈주(1992) 漢字學總論(全訂增補版), 박영사
정연찬(1970) 世宗代의 漢字 四聲 表記法, 국어국문학 49.50합

- 최세화(1982) 十五世紀 國語의 重母音 研究(三版), 아세아문화사
- 최현배(1982) 고친한글갈, 정음문화사
- 최희수(1986) 조선 한자음 연구,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 허 응(1955) 旁點 研究—慶尙道 方言 聲調와의 比較—, 동방학지2
- 菅野裕臣(1977) 司譯院 漢學書에 記入된 近世 中國語의 聲調表記, 「국어국문학논총」 이승녕선생 고회기념 탑출판사
- 周法高 의 3인 編(1973) 漢字古今音彙, 香港中文大學出版
- James Legge(1976) THE CHINESE CLASSICS, five volumes by the Hong Kong University Press 고전문화사 1983 인쇄 발행